

5월 3-4주(2015.5.18~29) WTO 동향

※ (출처 : 통상전문지) Washington Trade Daily, Inside US Trade, Bridges Weekly

1. DDA 협상

□ OECD 계기에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 예정(6.4, 파리) ("An Early June Ministerial", 5.22 WTD)

- 동 회의에서 DDA 작업계획을 비롯한 10차 각료회의('15.12) 성과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 예정
- * 공동 의장국(호주, 케냐) + 초청국 30개국(우리나라, 브라질, 캐나다, 칠레, 중국, EU, 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나이지리아, 스위스, 대만, 미국 등)
- 회원국들은 최근 사무총장이 주재해 온 평균관세감축방식*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
- * 농업 구간별 관세감축 및 NAMA 스위스 공식을 대체할 평균관세감축방식 논의
- 미국, EU, 일본, 호주는 평균감축방식에 찬성 ⇔ 중국, 인도는 평균감축과 2008년 협상 텍스트간의 양립가능성(compatibility)에 대해 우려 표명

□ (농업)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(SSM) 관련, 선진국-개도국간 이견 지속 ("A 'Green Room' Meeting on SSM", 5.26/27 WTD / "US Says No to SSM", 5.29 WTD)

- G33·ACP·아프리카그룹 등 개도국들*은 SSM이 '개발' 차원에서 DDA 협상의 핵심이며 시장접근 개선과 무관하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
- * DDA에서 개도국들에게 SSM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선진국들의 SSG 활용은 연장할 경우, 이는 선진국들에 대한 역 우대(reverse S&DT)가 될 것이라고 우려
-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협상의 목표수준이 낮아진 상황에서 SSM 등 개도국 우대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입장

□ (NAMA) NAMA 협상 의장, 5가지 관세감축방안 제안 ("Approaches to NAMA Tariff Cuts" 5.20 WTD)

- NAMA 협상 의장은 WTO 사무총장 주재 7개국 협의 등에 근거하여 비농산물 관세감축 방식에 대한 다음의 5가지 대안 제시

◆ NAMA 의장이 제안한 5가지 관세감축방안

- ① 2008년 Rev.3 텍스트의 계수를 높여서 적용
선진국 8, 개도국 25를 적용(신축성 배제)하여 감축률 평균을 구한 후,
- ② 동 결과를 전체 평균관세율의 감축(cut of overall tariff average) 적용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
- ③ 여기에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여 기준이 되는 감축 목표를 낮춘 후 적용
- ④ 동 결과를 품목별 감축률의 평균(average cut of tariff lines) 적용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
- ⑤ 기존 평균 양허관세 수준에 따라 회원국들을 그룹핑해서 각각 다른 감축률 적용

- 회원국들이 '농업 시장접근-비농산물 시장접근'간의 연계 논의의 주장하고 있어, 향후 농업-NAMA 의장간의 긴밀한 의견조율 예상

□ (규범) 투명성 조항 중심으로 논의 시작 ("Rules Work" 5.22 WTD)

-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, 규범협상 의장은 DDA 작업계획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범 협상 4대 분야*의 투명성에 집중하자고 제안
- * 반덤핑협정 조항 개선, 보조금 및 상계 조치, 수산 보조금, 지역무역협정
- 그러나, 반덤핑 프렌즈 그룹은 투명성 개선 외에도 반덤핑 조치의 과도한 효과 완화, 반덤핑 조치의 영구화 방지, 적정 절차(due process) 강화 등과 관련된 보다 높은 수준의 아젠다 논의를 희망

2. 발리패키지 후속조치 : 무역원활화협정(TFA) 국내절차 이행 촉구 ("APEC Ministers Aim For TFA Ratification By Nairobi, Urge Others To Act" 5.29 Inside US Trade)

- 21개 APEC 회원국들은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(5.24)을 통해 '10차 WTO 각료회의까지 TF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각국의 국내절차 완료 후 수락서를 기탁'하도록 촉구

3. 복수국간 협상 : 정보통신협정(ITA) 확대협상 타결 노력 지속

("APEC Yields No Breakthrough on ITA, Though Ministers Say It Is 'Within Reach'" 5.29 Inside US Trade)

- APEC 통상장관회의(5.23)에서도 ITA 확대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, 7월 중순까지 품목 범위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협상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